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문장 광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1월 3일 금요일 (음 9월 15일) 제192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여성 권익 향상 노력 '결실'

송 지사, 전국여성대회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상 수상

송하진 도지사는 여성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2일,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했다. 우수 지방자치단체상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민족여성 네트워크 열어
여성 리더 협력체계 구축
익산·김제·남원 등
지역별 특색있는 정책 추진

전북도는 '제17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를 개최해 28개국 600여명의 한민족 여성 리더들과 도내 여성 리더들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전국 최초로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는 한편, 김제시와 남원시가 지정받는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여성의 일자리 분야, 여성의 가정 성폭력예방분야 등에서도 우수한 실적이 인정되어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사업 평가 기관표창, 아동 여성폭력방지 유공 국무총리 표창,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유공 기관표창, 아동정책 시행계획 유공 기관 표창 등 여러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은 바 있다.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에게 여성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해 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인권센터 내에 장애인인권 상담 부서를 설치해 장애인 인권침해 우려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방문형 인권상담 및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앞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가정이 행복

한 양성평등 실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권익보호를 통해 여성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가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국여성대회는 전국 여성대표 2,000여명이 참석해 '정의롭고 차별 없는 사회, 여성이 주도한다'를 주제로 강연과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김진성 기자

K-리그 우승 기념... 전북현대의 특별한 행진

전북현대축구단의 다섯 번째 K-리그 우승을 전주시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카퍼레이드와 팬 사인회가 열린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현대축구단의 5번째 우승을 기념하는 카퍼레이드가 오는 3일 오후 2시 20분부터 40분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풍남문교차로까지 기린대로와 팔달로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한옥마을 경기전 앞 광장에서 팬사인회와 사인볼 증정, 우승 세러머니 등의 우승 축하 행사도 진행된다.

K-리그 우승의 주역인 전북현대축구단 선수들과 구단 관계자, 주요 내빈 등이 탑승한 카퍼레이드 행렬은 원조 전주성인 전주종합경기장을 출발해 금암광장과 충경로 사거리를 지나 풍남문교차로까지 행진하며 열렬한 응원으로 함께 경기를 승리로 이끈 12번째 선수인 전북도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우승 축하행사는 1시간여 동안 전북현대축구단 선수들의 감사인사와 우승 기념 사인볼 증정, 기념촬영, 팬사인회, 우승 세러머니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우승 기념 카퍼레이드에 따른 교통통제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현대가 3일 오후 카퍼레이드와 팬 사인회를 전주시 일원에서 연다. 사진은 지난 달 2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뒤 우승이 확정돼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

오늘 오후 전주종합경기장서
풍남문교차로까지 카퍼레이드
팬 사인회 · 기념촬영 등 진행

단, 해당구간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SNS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를 통해 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북현대의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종합경기장에서 풍남문광장까지 진행되는 카퍼레이드 및 기념행사에 많은 전주시민들이 참여해 우승의 감격을 함께 즐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현대는 지난달 29일 홈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36라운드 제주전에서 3:0으로 승리하면서,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올해 K-리그 정규우승을 확정지었다. 전북현대의 정규리그 우승은 지난 2015년에 이어 2년만으로, 통산 5번째 우승이다. /김민근 기자

우리나라 주거복지의 현재와 미래 고민

전주시, 9일부터 이틀간 전통문화전당서 주거복지 컨퍼런스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포함 14가지 섹션별로 발제·토론

대한민국 주거복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거복지 컨퍼런스가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와 한국도시연구소, 주거복지 컨퍼런스 조직위원회는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발맞춰 주거복지·도시재생 관련 단체와 학계, 공공기관이 참여해 한국 주거복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는 장인 '제5회 주거복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주거복지 컨퍼런스'는 주거복지의 이념적, 실천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주거복지 관련 컨퍼런스로 지난 2009년 시작돼 2년에 한번씩 열리고 있다.

5회째를 맞이한 이번 주거복지 컨퍼런스는 주거복지 현장 실무자와 공무원, 임차인 등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하고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관·공의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꾸며진다.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주거복지 컨퍼런스는 주거복지컨퍼런스 조직위원장인 최병두 한국도시연구소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4가지 섹션별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된다.

기조발제는 변창훈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후 총 14개 세

션에 학계와 현장, 공공, 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약 80명 정도가 참여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융복합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새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발맞춰 민간과 지방정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주거복지 컨퍼런스를 통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에서의 요구어지는 다양한 이슈를 제시하고 논의할 기회"이라며 "정부 정책 문제와 대안제시와 함께 주거복지,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의 주거복지 정책이 융복합 되는 14가지 섹션별 주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토·일요일신문 읽는다.

신임 국민연금 이사장에 김성주 전 국회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사진)이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일 김 의원을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자로 청와대에 임명제청했다고 2일 밝혔다.

조만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신임이 결정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반면 국민 노후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고, 대신 재정고갈을 막기 위해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인 보험료율을 높이지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뉴스

국립예술도시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살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